



# 삶과 당당히 마주한 찬란한 이름 '어머니'

채기선 개인전 '어머니의 바다'  
이달 4~16일 갤러리ED에서  
세상 모든 어머니와 해녀 향한  
존경과 사랑의 깊은 마음 담아

작가의 유년 시절은 해녀 어머니와 삼촌들이 함께했던 바닷가의 기억으로 물들어 있다. 30년 동안 한라산을 그리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 속에 파도소리가 들리면 꿈틀거리는 무의식의 깊은 감정이 올라옴을 느낀다. 문득, 가슴 뭉클해지는 그 울림이 어머니와 이어진 바다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작가가 화폭 위 그려낸 '어머니의 바다'는 강렬한 물결로 펼쳐진다. 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해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가족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투영한다.

채기선 작가가 서른여섯 번째 개인전 '어머니의 바다'로 관객과 다시 마주한다. 화가 아들이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정 전



채기선 작 '그녀에게 사랑과 존경을'

시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해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어머니'를 주제로 삼아 마련했다.

작품 '한라산 꽃밭을 그녀에게'는 어머니에게 꽃밭을 선물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담겼고, 캔버스 가득 사랑과 존경의 꽃말을 지닌 붉은 칸나를 채운 '그녀에게 사랑과 존경을'은 아버이날 캐내이션을 달아드리듯 어머니를 향한 깊은 마

음을 담아 커다랗게 그려넣었다. 화가인 아들이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더 커다랗고 두텁고 강렬하게 화폭에 새겼다.

그리고 자식에게 작은 것이라고 주고 싶은 어머니의 소박한 마음을 표현한 '머그라-추석 어느날'까지, 전시작은 어머니를 향한 애뜻한 작가의 마음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여 다가온다.



'기선이 어머니'

15년 전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기선 어머니'를 비롯해 '윤형이 어머니', '애순이 어머니' 등 작가에게 "모두 어머니 같은" 지인의 어머니를 그린 작품도 다수 내걸린다.

전시는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한라일보 1층 갤러리ED에서 진행된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94)

## 설원을 마주한 저녁

선안영

저 흰빛을 나 차마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흰 호청의 요 위에 붉은 꽃잎 피울 수가 없고, 흰 종이에 이 세상 밤과 낮을 띄울 수가 없고, 너무 늦고, 너무 늦어 잎이 아닌 가시뿐인걸요. 붉은 빈발 건네다 갔고요. 여름은 잠 밖으로, 가을은 긴 마취 중에 자연 지나갔으니, 얼룩무늬 외투를 꺼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나, 타인의 씨방을 훔쳐 겨울보다 더 겨울을 살았나 봐요. 이제 눈 부신 저 눈발을 오래 굴러 기억보다 몸 나가는 죄를 삭이고

어디에 표류할 줄 모르는 물병편지를 띄웁니다.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아서  
눈길 위에 반지라도 눈사람을 굴리며

거듭 나, 숨을 끌고서 당신께 살려 갑니다.



삽화=배수연

곧 늦고, 곧 늙을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다시 뒤돌아보는 긴 사계절은 동명이인으로 겨울을 살았다고 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으려나. 결국 그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다고나 하고, 그만큼 아프기만 한 사람이 거듭 살려 가려는 와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같이 나뉠던 급한 마음의 시간은, 겨울 눈발까지 굴러온 내밀한 간원이 소소한 구석에서 어루만지는 숨은, 떨리고 가쁘지만 했을 텐데. 어디로 가나. 모진 겨울만 산 사람이 살아서 한 번 겨울 밖으로 "반지라도 눈사람을 굴리며" 살려 가고 싶은 이생의 운명은 모두 비슷했던 걸로 안다. 그러니 '표류'라는 물병편지는 지리상으로 갈 수 없는 장소에 닿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뜻이 아직도 흘러가는 거겠지. "당신께 살려" 간다는 눈발의 다짐으로 흰 호청의 요 같은 눈부신 "흰빛"이 나오고, 세상 어디서는 차가워진 별 자락이 깔리는 눈길 위에 굴러가는 눈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시어, 아름다움을 겪기 위한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인>



## 꿈을 향한 꼬마탐험대의 힘찬 날갯짓

제주시 창작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날개''

제주시 창작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날개''가 올해도 관객과 만난다.

오는 15일(오후 7시)과 16일(오전 10시30분) 이틀에 걸쳐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총 2회 선보인다.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날개''는 70여 년 전 김녕초등학교 부종휴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장굴을 발견했던 일대기와 그 도전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뮤지컬로 제작·각색한 작품이다. 원작은 강

순복 작가의 동화 '꼬짜선생과 꼬마 탐험대'다.

이 작품은 지난 2022년 또 하나의 제주콘텐츠 뮤지컬로 첫선을 보이며 주목받았던 어린이 창작 뮤지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에 '날개'란 부제를 달고 (주)호은아트주관으로 대부분부터 음악, 연출 등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해 초연(사진)됐다. 공연은 '제주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제주 소재 어린이 뮤지컬'이라는 의미에 더해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 공연에 참여한 주연 배우 이외에도 제주 출신 뮤지컬 배우들이 주·조연으로 더블 캐스팅돼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는 무료며, 티켓 예약은 오는 14일 낮 12시까지 제주아트센터 누리집에서 1인 4매까지 가능하다.

오른지기자

## 제주이야기로

### 재해석된 '맥베스'

7일 김정문화회관 무대

셰익스피어의 명작 '맥베스'가 제주어와 제주의 정서를 입고 재탄생한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극단 공극사의 '제주어로 얘기하는 제주 이야기 '맥베스'' 공연을 오는 7일 오후 3~6시 총 2회에 걸쳐 개최한다.

극단 공극사는 원작의 강렬한 드라마와 비극적인 서사를 제주 문화의 독특한 맥락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각색과 연출은 류태호가 맡았다.

무료 공연이며, 각 회당 330명까지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오른지기자

## 축하드립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12대 선거직 임원 당선자 공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개최한 2024년 12월 2일 임시총회에서 선거직 임원 선거를 통하여 회장·상임부회장과 감사2명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b>회 장</b>	<b>상임부회장</b>	<b>감 사</b>	<b>감 사</b>
김창범	양성주	박영수	정순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선거관리위원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직무대행 이상언

## 진 축 금 해병대 준장



좌태국  
(해사 497기)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은집 가족일동

작은아버지: (재)좌창남·작은어머니: 이창순  
사촌형제: 좌정자 부자영자 금순은영 주연승철

## 수 축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조재홍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회장)

도농교류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5기  
회장 이광훈 외 원우 일동